

(2017. 8. 26 시행) 국가직 7급 기출문제 [한국사(가 책형) 해설]

[조 현 수 선생님]

제일고시학원(중앙로점/충남대점) www.okpass.com

1.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조는 이진아시왕이다. 그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석이정전』을 살펴보면, 가야산 신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응되어 이 나라 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예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①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해 가야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 ②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남겼다.
- ③ 시조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와 혼인을 하였다고 전한다.
- ④ 전성기에는 지금의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의 이 나라는 대가야이다. ① 광개토대왕이 금관가야를 공격(400년)한 후 금관가야는 쇠퇴하고 이후 대가야가 가야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②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고분군이고 금관가야의 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다. ③ 아유타국은 인도를 의미하며 인도에서 온 허황옥과 결혼한 인물은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이다. ④ 대가야는 한때 세력을 확장하여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

2.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려시대에는 제술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어 그 합격자를 중용 하였다.
ㄴ. 고려시대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었다.
ㄷ. 조선시대에 잡과에 합격한 기술관은 해당 관청에서 최고 정 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ㄹ. 조선시대의 음서 대상도 고려시대와 동일하여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리까지 진출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해설) ㄱ - 고려시대 문과는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뉘는데 총 합격생 기록을 보면 제술과는 6,700여명, 명경과 합격생은 449명이다. 이는 고려시대 제술과가 명경과보다 우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ㄴ 국자감시는 국자감 학생과 초시 합격생, 현직 관료, 사학 12도 학생도 시험 자격이 부여되었다. ㄷ 조선시대 잡과 합격생은 최고 정 3품까지 승진이 가능하였다.(하지만 정 3품 승진이 무조건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ㄹ 조선시대의 음서(문음)는 고려와 달리 고위 관리 승진이 제한되었다.(고려 음서 - 5품 이상, 고위 관리 승진 가능 vs 조선 음서 - 2품 이상, 고위 관리 승진 불가능)

3.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제너럴 셔먼 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해 왔다. 이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조선군의 결사 항전과 정부의 통상 거부로 미군은 결국 퇴각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조선 정부도 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권대관 신현 등을 통해 미국과 (㉠)을(를) 체결하였다.

- ① 조선과 영국의 통상 조약 체결 이후 맺어졌다.
- ② 양국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었다.
- ③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정답) ④

해설) ㉠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4월)이다. ① 조·영 통상 수호 조약은 1883년이다. ②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조·일 통상 장정(= 조·일 무역 규칙)은 1876. 7월에 체결한 것으로 3무 조항(무항세,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을 맺었다. ③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청나라의 알선으로 체결되었다. ④ 거중조정(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1조 내용이다. 거중조정 조항은 청의 이홍장이 먼저 제시한 것이다. 청이 거중조정을 먼저 제시한 이유는 청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미국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4.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곳에서는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이 형성되어 자치 기구와 학교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이상설 등은 성명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벌였고, 이후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진 대한국민의회가 전로한족회중앙총회로부터 개편 조직되었다.

<보 기>

- ㄱ. 권업회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 ㄴ.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가 설치되었다.
- ㄷ.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벌였다.
- ㄹ. 신규식, 박은식 등의 주도로 동제사가 조직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이곳’은 연해주이다. 성명회는 1910년 8월(국권 피탈 이전)에 결성된 단체이다. 전로한족회중앙총회(1917년)를 개편하여 대한국민의회(1919년)가 연해주에서 결성되었다. ㄱ 권업회는 신민회 해산 후 1911년에 연해주에서 조직된 단체이다. ㄴ 신흥강습소는 서간도 삼원보에 설치되었다. ㄷ 권업회가 1914년에 결성한 정부가 대한 광복군 정부(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이다. ㄹ 동제사는 1912년 신규식, 박은식 등이 상하이에서 조직하였다.

5.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왕을 ‘황상’ 또는 ‘대왕’ 등으로 칭하였다.
- ② 모피, 우황, 구리, 말 등을 당나라에 수출하였다.
- ③ 상경(上京)은 당나라 도성을 본떠 조방(條坊)을 나누었다.
- ④ 중앙의 주요 관서에 각각 복수(複數)의 장관을 임명하였다.

정답) ④

해설) ① 정혜공주(문왕의 둘째 딸, 40살에 사망) · 정효공주(문왕의 넷째 딸, 36세에 사망)의 묘지석(4·6면려체로 기록 - 내용은 같고 이름만 바뀜)에서 아버지는 ‘대홍보력금륜효감성법대왕’이다. 여기서 ‘대왕’은 문왕을 의미한다. 또 기록에 공주가 죽었을 때 “‘황상’이 매우 슬퍼하였다.”는 기록에서 ‘황상’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② 발해의 주요 수출품이다. 특히 모피와 말(술빈부의 말)이 유명하다. ③ 발해의 상경성은 중국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설하였다. 상경성의 구조는 주작대로를 기준으로 좌경(동쪽)과 우경(서쪽)으로 나누고 각 구획을 나누었다. 각 구획을 조방(條坊)이라고 한다. ④ 중앙의 주요 관서에 각각 복수(複數)의 장관을 임명한 나라는 통일 신라이다. 예를 들어 법흥왕 때 설치한 병부의 장(長)을 병부령이라고 하는데 법흥왕 때 병부령 1인, 진흥왕 때 병부령 2인, 무열왕 때 3명이 임명된다. 통일 신라 대부분의 장(長)은 복수로 임명하나, 화백회의의 장인 상대등과 집사부의 장인 중시(시중)은 한 명만 임명되었다.

6.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관원의 일기에서 발췌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568년: 광흥창에서 쌀 7섬, 콩 7섬, 명주베 1필, 삼베 3필을 받아왔다.
- ▶ 1568년: 쌀 4섬 5되와 베 10필, 콩 2섬으로 이형이라는 사람의 밭을 샀다.
- ▶ 1569년: 노비 석정이 와서 올해 논의 총 수확이 모두 83섬이라고 말했다.
- ▶ 1570년: 이효원이 찾아와 호조에 속한 공장(工匠)이 만들어 파는 충정관(冲靜冠)의 구입을 권하였다.

- ① 이 관원은 녹봉을 광흥창에 가서 받았다.
- ② 이 관원이 이형에게 산 밭은 병작반수의 형태로 경작을 시킬 수 있었다.
- ③ 이 관원은 논의 총 수확 83섬의 10분의 1을 농민들로부터 수조할 수 있었다.
- ④ 이 관원은 관청에 소속된 공장들이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정답) ③

해설) ① 고려시대 광흥창은 풍저창 · 용문창과 함께 경창에 해당한다. 광흥창은 녹봉, 풍저창은 중앙 정부의 경비, 용문창은 군량미를 보관하던 창고이다. 이후 조선시대에 광흥창, 풍저창의 명칭이 그대로 쓰이나, 용문창은 군자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관원(관료)은 녹봉 지급을 담당하는 광흥창에서 녹봉을 지급 받았음은 맞다. ② 이 관원은 지주으로써 이형이라는 사람에게 병작반수(= 병작(지주 + 소작농이 함께 경작) + 반수(반반씩 나누어 가짐)) 형태로 경작을 시킬 수 있었다.(세조 이후 지주들의 대토지 소유가 본격적으로 허용되어 병작반수가 가능하였다.) ③ 노비(석정)이 와서 보고 했다는 것은 이 관원의 개인 소유 토

지를 의미한다. 이 토지에서 생산된 것은 모두 이 관원의 소유가 된다. 1/10세를 받는 경우는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관수관급제 체제에서 관료로서 받는 세(세금)가 된다. 이 토지는 관원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100% 모두 이 관원이 갖아야 한다. ④ 관청 소속의 공장(기술자)들은 정해진 양 이외의 추가 생산량은 국가에 세(세금)을 내고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이 관원은 공장의 추가 생산량을 구입할 수 있다.

7. 신라 말 진성왕 대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 ② 궁예가 국호 마진을 태봉으로 바꾸었다.
- ③ 원종과 애노가 사별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④ 양길이가 부하를 보내 명주 관할 군현을 공격하였다.

정답) ②

해설) 진성왕은 진성여왕(887년 ~ 897년)을 의미한다. ①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킨 시기는 후백제 건국(900년) 전 시기이다. ② 궁예가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변경한 시기는 911년 효공왕 시기이다. ③ 원종과 애노의 난은 진성여왕 제위 시기인 889년의 농민봉기이다. 또 진성여왕 집권 시기에 적고적의 난도 발생하였다. ④ 양길이가 명주(지금의 강릉)을 공격한 시기도 진성여왕 시기의 일이다.

8.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벌이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중략)… 성책(城柵)의 축조는 모두 둥근 형태로 하는데, 마치 감옥과 같았다. …(중략) …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는 모두 얼음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중략)… 장사를 후하게 지냈으며, 괵(槨)은 사용하였으나 관(棺)은 쓰지 않았다. 『삼국지』 <보 기> ㄱ.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다. ㄴ. 국왕의 장례에는 옥갑(玉匣)을 사용하였다. ㄷ.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갖고 있었다. ㄹ.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괵 속에 넣어 매장하였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sqsubset, \sqsupset$

정답) ①

해설) 제시된 나라는 부여이다.(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고조선의 8조법),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부여))

ㄱ (부여)	여섯 가족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다. ☞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외에 견사자, 견사 등의 여섯 가족의 이름을 딴 관명이 있었다.
ㄴ (부여)	국왕의 장례에는 옥갑(玉匣)을 사용하였다. ☞ 국왕의 장례에는 옥으로 만든 수의(죽은 자에게 입히는 옷)를 입혔다.
ㄷ (고구려)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갖고 있었다. ☞ 부경은 고구려의 약탈물 저장 창고이다.
ㄹ (옥저)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곶 속에 넣어 매장하였다. ☞ 옥저의 가족 공동묘(= 세골장 = 두벌문이 = 골장제)에 대한 설명이다.

9. 밑줄 친 ‘이 내각’의 재정 개혁안으로 옳은 것은?

이 내각의 개혁 정책은 초정부적 비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군국기무처에는 박정양, 유길준 등의 개화 인사들이 참여하여 개혁 정책을 결정하였다.

- 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하도록 한다.
- ②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의 관할로 일원화시키도록 한다.
- ③ 궁내부 산하의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사업 등의 재정을 관할하도록 한다.
- ④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정답) ②

해설)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보아 ‘이 내각(1차 김홍집 내각)’은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약 210여 건 정도 안건 줄속 처리 - 1895년 7월 ~ 10월 까지만 회의 후 처리함) 1895년 12월에 군국기무처가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①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 14조의 내용이다. ② 1차 갑오개혁 때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고 탁지아문에서 제정을 관할하였다. ③ 궁내부 내장원은 광무개혁 때 조직하였다. ④ 독립협회 ‘헌의 6조(1898년 10월 말)’의 내용이다.

10. 사립의 문화를 반영한 16 ~ 17세기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정의 풍죽도 ② 심사정의 초충도
③ 어몽룡의 월매도 ④ 황집중의 목포도도

정답) ②

해설) 이정, 어몽룡, 황십중은 조선 중기의 3절이다. ② 현재 심사정은 판아재 조영석, 겸재 정선과 더불어 조선 후기 3재 화가(판아재 조영석 대신 공재 윤두서를 포함하기도 함)이다. (겸재 정선은 현재 심사정의 스승으로 18세기 대표적 화가이다.) 초충도는 심사임당의 그림으로 유명하나 심사정도 산수화 외에 화훼와 초충에 뛰어났다.

11. 다음 기행문의 ㉠에서 출토한 유물로 적절한 것은?

며칠 전 나는 공주 시내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은 송산리 고분군이었다. 그곳에는(㉠)가(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었다.(㉠)는(은) 연도(羨道)와 현실(玄室)을 아치형으로 조성한 벽돌무덤이다. 이 무덤에서 금송(金松)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棺)을 비롯하여 많은 부장품을 출토하였다. 중국 남조 양나라나 왜와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무덤이다.

- ① 무덤 안에 있는 여러 옷차림의 토우
- ② 무덤 안에 놓여 있는 왕과 왕비의 지석
- ③ 무덤 안의 네 벽면을 장식한 사신도 벽화
- ④ 무덤 주위를 둘러싼 돌에 새겨진 12지 신상

정답) ②

해설) ㉠은 백제 무령왕릉(공주 송산리 7호분(벽화 없음)이다. ① 무덤안에 토우를 매장한 나라는 신라이다. 지증왕 때 순장을 금지한 후부터 토우를 무덤 안에 매장하였다. ② 무령왕릉에는 왕과 왕비의 지석(죽은자를 알리는 묘지석)과 매지권(땅을 매입한 문서)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무령왕릉에는 오수전(한나라 때 사용한 동전)도 함께 부장하였다. ③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다. 백제 고분 벽화는 총 2개가 발견되었는데 공주 송산리 6호분과 능산리 고분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④ 통일 신라 김유신 묘(굴식 돌방무덤)에 12지 신상이 새겨진 돌레돌이 둘러져 있다.

※ 용어 해설: 연도(羨道): 무덤길, 현실(玄室): 관을 놓는 방

12.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총칭으로 이동하였다.
- ㄴ.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하였다.
- ㄷ.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편입하였다.
- ㄹ.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 ① ㄱ→ㄷ→ㄷ→ㄴ
- ② ㄴ→ㄱ→ㄷ→ㄷ
- ③ ㄷ→ㄴ→ㄱ→ㄷ
- ④ ㄷ→ㄷ→ㄴ→ㄱ

정답) ①

해설) ㄱ 1940년 → ㄷ 1941년 → ㄷ 1942년 → ㄴ 1944년(임시정부 5차 개헌)의 사실이다.

13.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스스로 국공(國公)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칭하였다. 그는 남의 토지를 빼앗고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집에는 썩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나 되었다.

- ① 그가 일으킨 난을 경계(庚癸)의 난이라고도 한다.
- ② 아들을 출가시켜 현화사 불교 세력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 ③ 금의 군신 관계 요구에 반대하며 금 정벌론을 주장하였다.
- ④ 문벌귀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지덕쇠왕설을 내세워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 그는‘이자겸’이다. ① 경계의 난(문벌 귀족이 제거된 사건)은 경인의 난(정중부의 난(= 무신정변), 1170년)과 계사의 난(김보당의 난, 1173년)이다. ② 이자겸은 아들(의장 - 현화사 주지 승려)을 출가시켜 현화사와 유대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자겸의 난(1126년)이 일어나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 했을 때 의장이 승려들을 모아 궁궐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③ 이자겸은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였다. ④ 묘정에 대한 설명이다.

14. 다음 글에 나타난 ‘무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무리들이 번성한 지 벌써 십 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그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 만하다. 지금 이영창의 심문 기록을 살펴보니 더욱 통탄스럽다.

- ① 양주 백정 출신인 임격정을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활동하였다.
- ② 장길산을 우두머리로 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 하였다.
- ③ 실존 인물인 홍길동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로 충청도에서 활동하였다.
- ④ 몰락 양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노동자 등이 가세하였다.

정답) ②

해설) 밑줄 친 무리들은 장길산 도적떼를 말한다. ① 임격정, ③ 홍길동, ④ 몰락양반 홍경래이다.

※ 조선 시대 3대 도적: 홍길동(연산군 때), 임격정(명종 때), 장길산(숙종 때) - 장길산이 셋 중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았다.

이영창: 한양에 살고 있던 서얼 출신으로 장길산과 금강산의 승려들과 연대하여 서울로 진격하려 하였다. 이후 장길산은 체포되지 않았다.

1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성록	ㄴ. 난중일기	ㄷ. 비변사등록
ㄹ. 승정원일기	ㅁ. 한국의 유교책판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해설) ㄱ 일성록은 정조가 세손 때 썼던 경희궁 존현각 일기가 기원이 되어 왕 즉위 후 국가의 업무 일지(강목체로 서술)로 쓰여졌으며 규장각에서 담당하였다. ㄴ 이순신 장군이 임

진왜란을 기록한 일기, ㄹ 승정원의 일지를 기록한 책, ㄱ 한국의 유교책판(儒敎冊版,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in Korea)은 조선시대(1392 ~ 1910)에 718종의 서책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으로, 305개 문종과 서원에서 기탁한 총 64,226장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한국 국학 진흥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2015년에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ㄷ. 비변사등록은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의 학문은 안에서만 구할 뿐이고 밖에서는 구하지 않는다. ... (중략) ... 그런데 오늘날 주자를 말하는 자들로 말하면,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를 빌리는 것이요, 주자를 빌릴 뿐만 아니라 곧 주자를 부회해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려 하고 주자를 끼고 위엄을 지어 자기들의 사욕을 달성하려 할 뿐이다.

- ① 양지와 양능의 본체성을 근거로 지행합일을 긍정하였다.
- ② 교조화 된 주자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리어 죽음을 당하였다.
- ③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족·서민은 예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유교문명 이외에도 유럽·회교·불교 문명권을 소개하여 시야를 넓혀 주었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은 양명학에 대한 설명 정제두의 『하곡집』 내용이다. 정제두는 주자의 성리학을 비판하였다. ② 윤휴(사문난적으로 몰려 송시열과 대립하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③ 송시열, ④ 최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양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양능: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17.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ㄴ.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ㄷ. 일제는 무장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었다.
 ㄹ. 한국독립당의 산하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이 조직되었다.

- ① ㄱ→ㄴ→ㄷ→ㄹ
- ② ㄴ→ㄱ→ㄷ→ㄹ
- ③ ㄷ→ㄹ→ㄴ→ㄱ
- ④ ㄹ→ㄷ→ㄱ→ㄴ

정답) ①

해설) ㄱ 훈춘 사건(1920년 10월) → ㄴ 자유시 이동(1921년) → ㄷ 미쓰야(= 삼시) 협정(1925) → ㄹ 한국 독립군 조직(1930년 추정) 순이다.

18. 다음 상황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자 이에 전봉준은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여 농민군의 삼례 집결을 도모하였고, 기병을 촉구 하는 통문을 돌렸다. 통문에는 “이번 거사에 호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한 자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 기>

- ㄱ.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였다.
- ㄴ.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다.
- ㄷ. 북점군과 남점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집결하였다.
- ㄹ.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를 맞아 격돌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은 일본의 경복궁 습격(1894년 6월 21일) 이후의 일을 묻는 것이다. 즉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를 찾아야 한다. ㄱ 1차 봉기, ㄴ 1차 봉기, ㄷ 2차 봉기, ㄹ 2차 봉기의 내용이다.

19. 조선 후기 역사서에 나타나는 정통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상덕의 『동사회강』에서는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았다.
- ②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삼국을 무통으로 하고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를 정통으로 하였다.
- ③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에서는 단군을 배제하고 기자-마한 -통일신라의 흐름을 정통으로 규정하였다.
- ④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에서는 기자의 전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고 하여 기자-마한-신라를 정통 국가로 내세웠다.

정답) ③

해설) 홍만종의 역사서는 그의 모든 책에서 단군을 우위로 두었다.

20.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950. 6	1950. 9	1951. 1	1951. 6	1953. 7
	(가)			
6. 25 전쟁 발발	서울 수복	1. 4 후퇴	휴전 회담 시작	정전 협정 체결

- ① 대규모 해상 작전인 흥남 철수가 이루어졌다.
- ②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의 석방을 단행하였다.
- ③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다.
- ④ 미국은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2017. 기출문제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1950년 12월 15일 ~ 12월 24일, ② 1953년 6월 18일, ③ 1951년 4월 11일, ④ 1950년 1월의 일이다.